

## 생활과 윤리 중요 선지- 기타 윤리 PART

### 윤리 문제에 대한 접근

1	유교에서는 통치의 궁극적 목표가 사회 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한 부국강병이라고 본다.(수능특강 25p 1번 문제)	O X
2	불교 윤리에 따르면,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. (수능특강 25p 2번 문제)	O X
3	불교에서는 연기를 자각해야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. (수능특강 25p 2번 문제)	O X
4	불교에서는 무명과 애욕의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변하는 실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. (수능특강 25p 2번 문제)	O X
5	아퀴나스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행위만을 도덕적이라고 본다. (수능특강 26p 5번 문제)	O X
6	아퀴나스는 자기 보존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본다. (수능특강 26p 5번 문제)	O X
7	칸트는 오직 의무 의식과 경향성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. (수능특강 26p 5번 문제)	O X
8	매킨타이어는 보편타당한 도덕 법칙에 의거한 판단만을 따라야한다고 본다. (수능특강 26p 8번 문제)	O X
9	맹자는 사단이라는 선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주어져있다고 본다. (수능특강 27p 1번 문제)	O X
10	노자는 영토가 작고 인위적 문명의 발달이 없는 무위의 사회를 강조한다. (수능특강 27p 1번 문제)	O X
11	노자는 인의예지의 덕목을 사회적 규범으로 강조한다. (수능특강 27p 1번 문제)	O X
12	맹자는 존비(尊卑)와 친소(親疏)의 구별을 전제로 한 사랑을 강조한다. (수능특강 27p 1번 문제)	O X
13	맹자는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자타불이의 정신을 실현해야한다고 본다. (수능특강 27p 2번 문제)	O X
14	불교는 삶의 모든 현상이 허무임을 스스로 깨달아야한다고 본다. (수능특강 28p 3번 문제)	O X

15	유교에서는 인위적 규범을 버리고 욕망을 다스려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. (수능특강 28p 3번 문제)	○ X
16	불교에서는 자기해탈을 위한 종교적 수행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. (수능특강 28p 3번 문제)	○ X
17	유교에서는 인간이 하늘로부터 도덕적 본성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본다. (수능특강 해설 8p 3번)	○ X
18	불교는 타인에 대한 배려의 정신을 실천해야 불성이 형성된다고 본다. (수능특강 28p 4번 문제)	○ X
19	불교 윤리에 따르면,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인연에 의해 생겨난 존엄한 존재이다. (수능특강 28p 4번 문제)	○ X
20	벤담은 밀과 달리 도덕적 행위의 실천과 사회적 행복의 실현이 양립 가능하다고 본다. (수능특강 29p 6번 문제)	○ X
21	벤담에 따르면, 도덕은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다. (수능특강 29p 6번 문제)	○ X
22	밀은 쾌락을 계산할 때 쾌락의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. (수능특강 29p 6번 문제)	○ X
23	매킨타이어와 칸트는 모두 도덕은 행복 실현에 기여해야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. (수능특강 30p 7번 문제)	○ X
24	칸트는 인간을 목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위라고 본다. (수능특강 30p 7번 문제)	○ X
25	칸트에 따르면, 의무에 맞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이다. (수능특강 30p 7번 문제)	○ X
26	칸트는 도덕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것이라고 본다. (수능특강 30p 7번 문제)	○ X
27	아퀴나스는 신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연적 성향을 따르는 것은 옳다고 본다. (수능특강 31p 9번 문제)	○ X
28	아퀴나스에 따르면, 오직 신만이 도덕 원리의 참, 거짓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. (수능특강 31p 9번 문제)	○ X
29	아퀴나스는 인간이 이성적 사유를 통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. (수능특강 31p 9번 문제)	○ X

30	덕 윤리적 관점에 따르면, 도덕적인 행위가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. (수능특강 31p 10번 문제)	O X
31	덕 윤리에서는 공동체의 전통이 개인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. (수능특강 31p 10번 문제)	O X
32	나딩스는 벤담과 달리 최대 행복의 원리보다 인간관계의 맥락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. (2020 6평 2번 문제)	O X
33	벤담은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한다고 본다. (2020 6평 2번 문제)	O X
34	벤담에 따르면, 공동체의 행복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합이다. (2020 수능 5번 문제)	O X
35	벤담은 실천적 지혜를 발휘해 유덕한 사람이 되는 것을 강조한다. (2020 수능 5번 문제)	O X
36	칸트는 선한 목적을 위해 조건적인 명령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고 본다. (2020 9평 2번)	O X

### 삶과 죽음의 윤리

1	장자에 따르면,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처럼 서로 연결된 것이라고 본다. (수능특강 39p 2번 문제)	O X
2	장자에 따르면, 삶은 기가 흩어지고 죽음은 기가 모이는 것이다. (수능특강 39p 2번 문제)	O X
3	불교에서는 인간이 죽음 이후에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본다. (수능특강 39p 3번 문제)	O X
4	불교에 따르면, 현실 세계에서의 도덕적 실천은 사후 세계의 삶에 영향을 준다. (수능특강 39p 3번 문제)	O X
5	플라톤은 에피쿠로스와 달리 죽음은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. (수능특강 40p 5번 문제)	O X
6	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에 참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다. (수능특강 40p 5번 문제)	O X
7	플라톤은 죽음 이후에 순수한 인식을 방해하는 이데아로부터 해방된다고 본다. (수능특강 35p)	O X
8	하이데거는 현존재인 인간만이 죽음을 염려할 수 있다고 본다. (수능특강 35p)	O X
9	에피쿠로스에게 따르면, 산 사람과 달리 죽은 사람에게에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. (수능특강 35p)	O X
10	불교에서는 죽음을 통해 신과 하나가 된다고 본다. (수능특강 41p 1번 문제)	O X
11	공자는 죽음보다 현실의 도덕적인 삶에 더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본다. (수능특강 41p 2번 문제)	O X
12	하이데거는 죽음 이후에야 자신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. (수능특강 42p 4번 문제)	O X
13	하이데거에 따르면, 죽음에 대한 자각은 인간을 주체적으로 존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. (수능특강 42p 4번 문제)	O X
14	하이데거는 인간이 죽음의 가능성을 완전히 잊을 때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. (수능특강 42p 4번 문제)	O X
15	아퀴나스에 따르면, 자살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상처를 주고 신에 대한 의무를 어기는 행위이다. (수능특강 43p 5번 문제)	O X

16	하이데거는 죽음으로 앞서 달려가 봄으로써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고 본다. (수능특강 44p 8번 문제)	O X
17	에피쿠로스는 죽음의 고통을 감내해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. (수능특강 44p 8번 문제)	O X
18	플라톤과 달리 에피쿠로스는 죽음 이후에도 불멸의 영혼이 존재한다고 본다. (수능특강 44p 8번 문제)	O X
19	장자는 삶과 죽음의 이치를 깨달아 인의(仁義)의 삶에 힘써야한다고 본다. (2020 9평 18번)	O X

### 지구촌 평화와 윤리

1	싱어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들만이 원조의 주체가 되어야한다고 본다. (수능특강 178p 3번 문제)	O X
2	싱어는 원조의 대상을 자국의 고통받는 시민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. (수능특강 178p 3번 문제)	O X
3	싱어에 따르면, 원조로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원조를 해야 한다. (수능특강 178p 3번 문제)	O X
4	칸트는 상비군 자체가 공격적 전쟁의 유발 요인이 된다고 본다. (수능특강 178p 4번 문제)	O X
5	칸트에 따르면, 평화는 상비군 간의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. (수능특강 178p 4번 문제)	O X
6	칸트에 따르면, 모든 전쟁이 휴전 상태가 되면 영구적 평화가 달성된다. (수능특강 178p 4번 문제)	O X
7	칸트는 적을 죽이도록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인간을 도구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본다. (수능특강 178p 4번 문제)	O X
8	갈통은 평화 개념을 인간 안보 차원에서 국가 안보 차원으로 확장하였다. (수능특강 178p 5번 문제)	O X
9	현실주의적 입장에 따르면, 국익보다 보편적 도덕률의 준수가 중요하다. (수능특강 179p 6번 문제)	O X
10	노직은 원조 여부를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. (수능특강 179p 7번 문제)	O X
11	싱어는 도덕적 의무의 차원에서 해외 원조를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. (수능특강 179p 7번 문제)	O X
12	롤스에 따르면, 원조를 제공하는 질서정연한 사회들은 온정적 간섭주의를 발휘해야 한다. (수능특강 179p 8번 문제)	O X
13	롤스는 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고통 받는 사회들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본다. (수능특강 179p 8번 문제)	O X
14	롤스는 해외 원조에 반드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. (수능특강 179p 8번 문제)	O X
15	롤스와 싱어는 모두 원조를 통해 모든 사회의 경제 수준을 동등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.	O X

16	롤스는 모든 질서정연한 사회는 부유하므로 해외 원조를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. (수능특강 179p 8번 문제)	O X
17	롤스는 상대적으로 빈곤한 모든 국가에 지속적인 원조가 필요하다고 본다. (수능특강 180p 2번 문제)	O X
18	칸트는 영구적 평화를 위해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공화적 체제이어야 한다고 본다. (수능특강 181p 3번 문제)	O X
19	칸트에 따르면,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 조건을 규정하는 데 국한되어야 한다. (수능특강 181p 3번 문제)	O X
20	칸트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폐지하고 세계 정부를 수립할 때만 평화가 실현된다고 본다. (수능특강 181p 3번 문제)	O X
21	칸트에 따르면, 공화정 체제가 아닌 다른 정치 체제에서는 전쟁 선포가 쉽게 결정된다. (수능특강 181p 3번 문제)	O X
22	현실주의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고, 분쟁의 원인을 권력 추구와 자국의 이익 추구로 본다. (수능특강 181p 4번 문제)	O X
23	롤스에 따르면, 고통받는 사회에 대한 원조 과정에서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만민법에 의해 배제된다. (수능특강 182p 5번 문제)	O X
24	싱어는 인류 전체의 공리 증진을 위해 원조를 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본다. (수능특강 182p 5번 문제)	O X
25	칸트는 박애주의적 관점에서 외국인의 영속적인 체류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본다. (수능특강 182p 6번 문제)	O X
26	갈통은 세계의 모든 전쟁이 종식됨과 동시에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고 본다. (수능특강 183p 7번 문제)	O X
27	롤스에 따르면, 인권이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는 빈곤하더라도 원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 (2020 수능 15번)	O X
28	롤스에 따르면, 적정 수준의 제도를 갖춘 사회가 되기 위해 막대한 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(2020 수능 15번)	O X
29	롤스는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 향상이 원조의 목적이라고 본다. (2020 9평 12번)	O X
30	싱어에 따르면, 자국민에 대한 원조가 효용이 더 크다면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원조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다. (2020 수능 15번)	O X

31	싱어에 따르면, 질서정연한 빈곤국은 원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(2020 9평 12번)	O X
32	싱어에 따르면, 모든 사람은 빈곤 해소를 위해 동등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. (2020 수능 15번)	O X

